

산릉·영건의례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건축에서 회벽의 존재 여부 고찰

-조선 후기 관영건축을 중심으로-

이 권 영*

(동명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조선시대, 회벽, 사벽, 미장벽, 미장공법, 건축문화재, 의례

1. 서론

오늘날 행해지고 있거나 보고 있는 것들이 먼 과거로부터 전해져온 전통적인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에 대한 생각도 그 중의 하나다. 오늘에 이어지고 남아 전해지고 있는 건물의 배치나 형태도 대개 초창 당시의 것이 아니라, 이후 많은 변형을 겪게 된다. 건축이 삶을 담은 그릇이기에 삶의 내용이 달라지면 요구에 의해 그 형식도 유기물처럼 변형되는 것이다. 건축물을 만드는 기술이나 공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만드는 도구와 재료가 달라지는 것이 그 한 이유다.

그렇다면 먼 후대에 그 건물을 수리하거나 복원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해당 건축물이 살아 있을 때, 즉 그 건축물 속에서 삶이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면 건물의 형태든 배치든, 기술이나 공법

이든 삶의 요구가 그 기준이 될 터이고, 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을 수용해야 하리라 본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죽어 있고, 보존 또는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고 한다면, 가치가 부여되는 당시대의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20세기 초 우리의 전통건축은 다방면에서 훼손되고 파괴되었다. 건축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력, 기술, 공법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인력과 기술, 재료와 공법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그 진위를 판단하기 힘든 정도다.

따라서 보존 또는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문화재가 있다면, 그 당대의 기술과 공법, 인력까지도 정확히 복구해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본 연구는 건축문화재의 보수·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산릉·영건의례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문헌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건축의 미장벽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남아 있는 종묘·사묘, 궁궐,

* 교신저자, 이메일: kylee38@tu.ac.kr

본 연구는 2009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조선시대 관영건축에서 회벽의 존재 여부 고찰-영건·산릉의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이다.

왕릉, 민가, 사찰 등의 제 건축물에 사용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벽 미장공법 중 석회를 사용한 공법이 존재했는가 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을 조선 후기 관영건축을 중심으로 한 것은 논제와 관련한 기록인 영건·산릉의궤가 관 주도의 건축공사에 대한 기록일 뿐더러, 시기상 조선 후기의 것들만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범위를 크게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회벽의 존재 여부를 고찰한다.

첫째, 현재 건축문화재 수리에 적용되고 있는 미장벽의 종류와 조선시대 관영건축에서 그 바탕 처리는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종묘·사묘, 궁궐, 왕릉 등 관영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과 미장공법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민가와 사찰 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과 미장공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2. 미장벽 종류와 바탕

2-1. 미장벽의 종류

미장벽의 구분은 정벌 미장재의 종류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건축물의 미장벽 종류를 살펴하기에 앞서, 오늘날 전통 건축물에 적용되는 미장벽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축문화재 수리 시 준거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와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및 실무요약」이 참고가 된다.¹⁾ 이에 의하면 문화재 수리에 적용되는 원칙은 원형 유지를 위해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1)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원,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2005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1998

있다.²⁾ 그 종류로는 흙벽, 사벽, 회사벽, 회반죽벽, 재사벽이 있다. 이들 미장벽 각각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흙벽(土壁) : 중깃, 가지새, 힘살, 외를 사용하여 외벽기를 한 후 흙으로 초벌과 재벌바름을 하고 다시 정벌바름으로 흙으로 마감한 벽. 초벌과 재벌바름에 쓰이는 흙은 모래 섞인 점성토로 짚여물과 섞어 사용한다. 혼합량과 크기는 다르지만 정벌에도 짚여물을 섞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벽(沙壁, 砂壁) : 재벌바름 위에 모래와 마사를 혼합하여 정벌바름으로 마감한 벽.

회사벽(灰沙壁, 灰砂壁) : 물에 담근 생석회에서 걸물을 제거한 석회죽에 모래와 백토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을 바른 벽.

회반죽벽 : 소석회에 소량의 여물과 모래를 섞어 넣고 해초풀로 반죽한 것을 바른 벽.

재사벽 : 진흙, 생석회, 모래를 섞어 넣고 해초풀로 반죽한 것을 바른 벽.

[표 1] 현 문화재수리 기준의 정벌 미장재 구성내역

구분	진흙	모래	마사(백토)	석회	해초풀	여물
사벽		○	○			
회사벽		○	○	석회죽		
회반죽벽		0.0006 m ³		소석회 1.5kg	0.07kg	0.05kg
재사벽	0.03m ³	0.0015 m ³		생석회 2.25kg	0.07kg	

이들 가운데 회반죽벽과 재사벽은 그 구성재와 혼합비가 명시되고 있으나, 사벽과 회사벽에 대해서는 그 구성재만 언급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건축문화재 수리에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따를 것이다. 특히 회반죽벽에 대해서는 민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궁궐 등에서 벽체를 미화하기 위해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방서에 준거하여 현재 궁궐 건축물을

2)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원, 앞의 책, 41쪽

비롯한 종묘·사묘, 왕릉, 사찰, 민가 등의 주요 건축물에 시공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종류의 미장벽이 조선 시대에 과연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앞서 전제된 문화재수리의 원칙인 원형 유지를 위한 기존의 양식과 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2. 미장벽의 바탕

먼저 현재 건축문화재 수리 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장벽의 바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통건축은 목조 가구식구조를 주류로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구식구조의 벽은 비내력벽으로서 흙으로 채워 단열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우선 기둥을 가로질러 아래 위에 인방을 대고, 기둥 옆에 나란히 벽선을 대어 흙벽을 지지하기 위한 일종의 액자틀을 만든다. 그런 다음 상하 인방 사이에 버팀대인 중깃을 세운다. 중깃 간격이 넓은 경우 중깃보다 가는 세로대인 힘살을 그 사이에 세워댄다. 그리고 힘살과 직교되게 가로대를 보내는 바 이를 가시새라고 한다. 힘살과 가시새에 의해 울이 성근 바둑판 모양의 벽틀이 짜여진다. 이 벽틀에 다시 가는 살외를 가로 세로 엮어 조밀하게 댄다. 놀외와 설외를 엮는 데는 새끼가 사용된다. 이러한 바탕틀 위에 흙과 짚여물을 섞어 초벌과 재벌바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의궤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㉔“제기고 3칸, 중배설청 3칸, 좌우의 월랑 4칸, 이상 10칸에 들어가는 바, 중깃

(中衿)용 소연목(小椽木) 96개, 가시새(槩)용 진장목(眞長木) 100개, 외(椳木) 10동(同), 사벽용 사벽(沙壁) 16태(駄), 제지(蹄紙) 10근(斤)”⁵⁾

㉕“신삼문 3칸에 들어가는 바, 중깃용 소연목 24개, 가시새용 진장목 40개, 외 7동, 용지판용 갓널(邊板) 4립”⁶⁾

㉖“정당 6칸에 들어가는 바, 중깃용 갓널, 가시새용 진장목 90개, 외 15동, 벽 및 앙토용 사벽 50태, 모래 20태”⁷⁾

㉗“벽의 가시새용 장작(燒木) 3,000개”⁸⁾

㉘“외 엮기(編椳)에 들어가는 진잡장(眞雜杖), 외, 새끼(網罟)”⁹⁾

㉙“앙토(仰土)와 벽토(壁土), 담장 쌓기(築牆) 때 비계(機械)용 갓널(邊板)”¹⁰⁾

㉚“정우(正宇)의 앙벽(仰壁)과 4면벽(面壁)에 흙바름(泥土)할 때 곡초(穀草)”¹¹⁾

㉛“벽토(壁土)에 들어가는 잘게 썬(細折) 곡초(穀草)”¹²⁾

㉜“이번 영건 시 정우 이하 여러 곳의 토벽에 흙미장(泥土)하는 데 들어가는 곡초 15동, 미장(泥匠)이 사용할 가는노(細繩) 500발(把)을 지급할 일”¹³⁾

㉔, ㉕, ㉖에 의하면 사묘(祠廟)에서 건물의 대소나 용도를 막론하고 모든 건물에 대해, 사벽치기에 앞서 중깃(中衿)을 수장제인 인방 등에 박아 세우고 이 중깃 사이에 가로로 가시새(槩木)를 끼운 다음, 그 주변으로 외(椳木)를 엮어 벽체의 바탕틀(木心)을 만들었음을 짐

5) 경모궁개건도감의궤, 新造질

6) 경모궁개건도감의궤, 新造질

7)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실입질

8) 서림영건도감의궤, 이문질 신묘 2월조

9) 창경궁영건도감의궤, 감결질, 기사 11월조

10) 남별전중건청의궤, 2소 품목질, 정사 4월 27일조

11) 의소묘영건청의궤, ?질

12) 문희묘영건청등록, 공작질, 匠募所用及各樣所用雜物取用數

13) 수은묘영건도감의궤, 별공작 수분질

3) 김왕직, 『알기쉬운 건축용어사전』, 도서출판 동녘, 경기도 초판, 207~214쪽, 2007

4) 이하 질 내용은 이권영, 「조선 후기 관영건축의 미장공사 재료와 기법에 관한 연구-營建儀軌의 沙壁과 仰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3호, 2007에서 일부를 재인용 편집함

작할 수 있다.

㉠, ㉡에 의하면 가시새로 장작(燒木)이나 진잡장(眞雜杖)이 사용되기도 하고, 중깃이나 가시새, 외를 엮는 끈으로는 새끼(綱罟)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소연목은 길이 12자, 말원경 4치인 소나무를, 잣널(邊板)은 길이 9자, 나비 9치, 두께 2치의 박송판을, 진장목(眞長木)과 진잡장(眞雜杖)은 길이 15자, 말원경 1치 2푼의 참나무를, 소목(燒木)은 땀감으로 쓰는 무게 10근의 장작이다.¹⁴⁾

㉢, ㉣, ㉤의 기록은 벽 바탕틀에 흙으로 초벌하는 일 과정을 보여준다. 만들어진 벽체의 바탕틀에 미장용 흙과 잘게 썬 짚여물(穀草)을 섞어 바르는 것이다. 이 과정이 초벽치기에 해당되는 데, 의례 기록을 통해서도 이 이상의 상세한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임원경제지』 「섬용지(贍用志)」 장벽(牆壁)조에서, “그런 뒤에 노랑고 차진 진흙을 안쪽부터 바른다. 안쪽이 마른 다음에 바깥쪽을 마저 바른다. 안팎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중략- 그 위에 (정벌을) 얹게 바른다.”¹⁵⁾고 한 초벽치기와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재벌도 초벌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3. 조선시대 관영건축의 미장 벽과 공법

3-1. 종묘·사묘의 제 건축물

종묘·사묘는 제례공간으로서, 여기에는 정전 또는 정당을 비롯하여, 어재실, 재실, 제기고, 수복방, 공신당, 월랑, 행각, 문 등 부속 건축물이 놓인다. 이들 건축물은 대개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다. 그 경우 실과 실 사이 또는 외기와 면한 곳에는 벽이 설치되는데, 판벽이나 창

호를 제외하고 미장벽의 경우 어떠한 미장 마감으로 처리했는지 의례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선시대 대규모 관영건축공사 가운데 종묘·사묘와 관련한 의례는 10여건이 있다. 그 가운데 벽 미장재료와 공법을 알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하면, 표2와 같이 3건에 불과하다. 영녕전수개(1667)와 종묘개수(1725)의 경우는 단위건물별 매칸당 또는 매벽당(每壁當) 미장재료의 구성내역을 세세하게 밝혀둔 경우다. 남별전중건(1677)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통틀어 기록된 경우다. 나머지 공사의 경우 건물별 어떠한 미장재료와 공법이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위 세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녕전수개(1667)의 경우 당초 각 3칸이었던 좌우 익실을 1칸씩 늘려 중앙의 정전 4칸, 좌우 익실 각 4칸씩으로 하여 총 12칸을 만든 증개축공사다. 정전과 좌우 익실을 비롯하여, 동서 월랑 10칸, 전사청 5칸, 수복방 2칸, 제기고 6칸, 숙설청 2칸, 재살청 2칸, 동문과 서문, 가초(家肖) 등 모든 건물의 벽과 양벽(仰壁)에 사벽이 적용된다. 각 실을 나누는 격벽 뿐만 아니라 각 실로 들어가는 문의 상부벽, 甲壁, 全蔽壁에 사벽이 적용된다. 화방벽이나 창호를

16) 당초 각 3칸이었던 좌우 익실을 1칸씩 늘려 중앙의 정전 4칸, 좌우 익실 각 4칸씩으로 하여 총 12칸을 만든 증개축공사이나, 미장은 증축한 좌우 익실 1칸만이 아니라 12칸 모두에 시행되고, 48칸 양벽이라고 한 것은 정전과 익실 1칸에 대해 단면상 중앙 1칸, 앞뒤 퇴칸 1칸씩 하여 3칸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 영녕전수개도감의례, 2소검 부서소, 정미 2월 20일 조, “정전 전면 문 위 4벽, 정전 합실 전면 4벽, 동서 익실 전면 문 위 각 4벽씩 8벽, 익실 합실 전면 각 4벽씩 8벽, 外家肖 4벽”

18) 위의 책, 같은 조, “전사청 5칸, 수복방 2칸, 제기고 6칸, 숙설청 2칸, 宰殺廳 2칸”

19) 위의 책, 같은 조, “전사청 토벽 7벽, 수복방 토벽 5벽, 제기고 토벽 11벽”

20) 종묘개수도감의례, 2소소장 품목질 병오 2월 27일, “정전 전면 문 위 甲壁 2벽씩 합10벽, 합실 5칸 전면 甲

14) 『度支準折』, 「木物」條

15) 서유구 저, 안대희 편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초판, 돌베개, 경기도, 225쪽, 2005에서 재인용

[표 2] 조선 후기 종묘·사묘 제 건축물의 벽 미장 구성재 내역

공사명	건물명	기준	벽 정벌 마감재료				비고	
			細沙	膠末 (眞末)	休紙	白土 (白瓦)		
영녕전수개 (1667)	정전+익실 합48칸 ¹⁶⁾ , 월랑10칸의 仰壁	매칸	2섬	3되	9전	1섬	仰沙壁	
	익실 隔壁 내외 12벽	매벽	1.5섬	2되	6전	0.5섬	沙壁	
	익실 내벽 18벽	매벽	1.5섬	2되	6전	0.5섬	沙壁	
	A 합28벽 ¹⁷⁾ 내외 甲壁	매벽	1섬	2되	6전	0.5섬	沙壁	
	동문6칸+서문2칸 합8칸의 仰壁	매칸	2섬	3되	9전	0.5섬	仰沙壁	
	B 합17칸 ¹⁸⁾ 의 仰壁	매칸	2섬	3되	9전	0.5섬	仰沙壁	
	C 합23벽 ¹⁹⁾ 내외 甲壁	매벽	1섬	2되	6전	0.5섬	沙壁	
	동월랑제기고1칸 3벽	매벽	1섬	2되	6전	0.5섬	沙壁	
서월랑 6벽	매벽	1섬	2되	6전	0.5섬	沙壁		
	총계		150태	2섬 3.2말	57근 6.2냥	69태		
남별전중건 (1677)	정전, 어재실 등	합계	210태	3섬 8말	74근 10냥	89태		
종묘개수 (1725)	정전	5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부속벽 ²⁰⁾	매벽	2섬	6되	3냥	1섬	沙壁
	제기고	2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부속벽 ²¹⁾	매벽	2섬	6되	3냥	1섬	沙壁
	월랑5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内家肖			1섬	4.5되	4.5냥	0.5섬	沙壁
	신문3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동문3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공신당	3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부속벽 ²²⁾	매벽	2섬	6되	3냥	1섬	沙壁
		문 위 半壁3칸		2섬	9되	9냥	1섬	沙壁
	수복방	3칸의 仰壁	매칸	2섬	6되	3냥	1섬	仰沙壁
6벽		매벽	2섬	6되	3냥	1섬	沙壁	

제외하고 양벽을 포함한 모든 벽 미장에 사벽이 적용된 것이다. 사벽의 구성재는 細沙, 膠末, 休紙, 白瓦이다. 細沙는 가는 모래를, 膠末은 풀가루, 休紙는 종이여물을, 白瓦는 백토를 일컫는다. 칸으로 구별되는 양벽, 즉 앙토바름의 경우에는 매칸당으로, 특정 벽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매벽당으로 사벽의 구성재 수량을 표시한다. 예컨대 양벽의 경우 정전과 익실에는 매칸당 세사 2섬(石), 교말 3되(升), 휴지 9전

(錢), 백토 1섬이 책정되고, 동문과 서문을 비롯한 전사청, 수복방, 제기고, 숙설청, 재살청의 경우 매칸당 세사 2섬, 교말 3되, 휴지 9전, 백토 0.5섬이 책정된다. 두 경우 구성재 중 백토의 수량만 차이가 날 뿐 동일하다. 동일한 양벽에 대해 왜 백토의 배합량을 달리 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벽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벽당 교말, 휴지, 백토의 수량은 같은데, 세사의 배합량은 익실의 격벽과 내벽이 1.5섬인 데 반해 나머지는 1섬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 같은 건물이나 실의 양벽과 벽체에 적용된 사벽 구성재의 배합비도 다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종묘개수(1725)의 경우는 종묘 정전을 동쪽 건축역사연구 제19권 3호 통권70호 2010년 6월

16) 壁 5벽, 합실 隔簾 위 甲壁 5벽, 후면 5칸 全蔽壁 5벽, 東壁 내외 全蔽壁 3벽과 甲壁 3벽, 家肖 내외”

21) 제기고 全蔽壁 4벽, 甲壁 2벽, 전면 문 위 甲壁 2벽, 동서 양편 家肖 내외

22) 공신당 全蔽壁 7벽, 甲壁 2벽, 동서 양편 家肖 내외

으로 4칸 증축하여 모두 15칸으로 만든 공사이다. 영녕전수개(1667)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전을 비롯하여 제기고, 월랑, 신문, 동문, 공신당, 수복방, 內家肖 등 모든 건물에 대해 사벽이 적용된다. 화방벽이나 창호를 제외하고 실구분의 격벽, 전폐벽, 문 상부벽, 갑벽 등 양벽을 포함한 모든 벽 미장에 사벽이 적용된다. 단위건물별 양벽과 벽체에 적용된 사벽 구성재는 내가초와 공신당의 문 상부 반벽을 제외하고 세사 2섬, 교말 6되, 휴지 3냥, 백토 1섬으로 모두 같다. 그 구성 혼합비를 영녕전수개(1667)와 비교해보면, 정전의 예로서 동일 세사랑을 기준으로 교말은 2배, 휴지는 3배나 많이 소요된다. 교말과 휴지의 물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미장재 사벽의 점착력과 인성,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저항성을 높이기 일환일 것이다. 영녕전수개(1667)와는 달리 같은 건물이나 실의 양벽과 벽체에 적용된 사벽 구성재의 배합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시행착오를 거쳐 후대로 오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반영하며 사벽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조처다.

남별전중건(1677)의 경우 단위건물별 사벽 소요량을 알 수 없고, 전체 건물의 총 소요량은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공사 건물은 정전 3칸을 비롯해 어재실, 동궁재실, 향청, 전사청, 제기고, 차일고, 집사청, 부장청, 액정청, 수복방, 참봉청, 침가, 외대문이다. 전체에 들어간 사벽 구성재의 총량은 세사 210태(駟), 진말 3섬 8말(斗), 휴지 74근 10냥, 백와 89태이다. 이 수량은 영녕전수개(1667)의 사벽용 구성재 총량의 약 1.4배에 해당된다. 또 남별전중건(1677)의 사벽용 소요량을 영녕전등록을 참고하여 추정하면서 칸수가 다르기에 추량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²³⁾ 이를 감안하면, 남별전의 모든 건물의 벽과 천정에 사벽이 적용되었을

23) 남별전중건도감의궤, 2소 품목질 정사 4월 20일조
건축역사연구 제19권 3호 통권70호 2010년 6월

것이다.

한편 이들 공사에서 모든 건물의 벽체와 양벽 미장에 사벽이 적용된 것을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미장재 중 하나인 석회의 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별전중건을 예로 살펴보면 총 30섬의 석회가 소요되는데, 모두 석물의 교착재인 유회(油灰)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²⁴⁾

따라서 종묘·사묘 내 모든 건축물의 벽과 양벽 미장재로는 화방벽이나 창호를 제외하고 사벽이 적용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3-2. 궁궐의 제 건축물

궁궐은 정전, 편전, 침전, 문과 행각을 비롯하여 많은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다. 이들 건축물도 대개는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다. 그 경우 실과 실 사이 또는 외기와 면한 곳에는 벽이 설치되는데, 판벽이나 창호를 제외한 미장벽의 경우 어떠한 미장 마감으로 처리했는지 영건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궁궐 영건과 관련한 기록은 17세기 초 창경궁수리도감의궤(1633)로부터 20세기 초 경운궁중건도감의궤(1906)에 이르기까지 10여건이 있다. 그러나 궁궐 내 건축물의 미장벽과 공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기록은 많지 않다. 그것은 의궤 기록의 편제상 문제와 관련된다. 즉 소요된 벽 미장재료를 특정 단위 건물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시행한 모든 건물 또는 여러 건물을 한데 묶어 소요량을 통틀어 기록한 데 기인한다.

예컨대 19세기 초 순조년간에 시행된 세 궁

24) 남별전중건도감의궤, 2소 품목질 정사 4월 20일조, 동 6월 27일조

25) 창경궁수리도감의궤 1소겸 잡물소, 通明殿, 思誠閣, 서책방, 동·서행각, 남·동월랑, 麗輝堂

26) 창경궁수리도감의궤 2소, 養和堂, 延禧堂, 演慶堂, 부속 월랑과 문

[표 3] 조선 후기 궁궐 제 건축물의 벽 미장 구성재 내역

공사명	건물명	벽 정벌 마감 구성재료						着漆		비고
		(細沙)沙壁	細沙	膠末(眞末)	休紙	白土(白瓦)	黃土	眞粉	三綠	
창경궁수리(1633)	1소 ²⁵⁾	476섬		2섬 12.5말	51근	190섬				沙壁
	2소 ²⁶⁾		25태	31말	21근	8태				沙壁
	3소 ²⁷⁾		入量	49말	95근	入量				沙壁
창덕궁창경궁수리(1652)	창덕1소 ²⁸⁾		30태	7+15말			15태	86근	43근	沙壁

궐공사를 보자. 서궐영건(1832)에서 용복전, 회상전, 집경당, 사현각, 흥정당과 그 부속 시설물 모두에 소입된 세사사벽(細沙沙壁)²⁹⁾은 모두 1,400태이다.³⁰⁾ 창경궁영건(1834)에서 통명전, 경춘전, 양화당, 함인정과 그 부속 시설물에 소입된 세사사벽은 모두 1,035태이다.³¹⁾ 창덕궁영건(1834)에서 대조전, 징광루, 양심각, 회정당과 그 부속 시설물에 소입된 세사사벽은 모두 850태이다.³²⁾ 20세기 초 광무 연간의 두 궁궐공사도 마찬가지다. 중화전영건(1904)에서 중화전, 행각, 중화문, 조원문에 소입된 세사사벽은 모두 2,500태이다.³³⁾ 경운궁중건(1906)에서 총 소입된 세사사벽은 모두 5,595태이다.³⁴⁾ 이들 19세기 초의 세 궁궐과 20세기 초의 두

궁궐의 경우 사벽 외에 다른 벽 미장재료나 공법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들 궁궐 공사에 사용된 세사사벽의 수량을 고려해 보면 어떤 용도의 건축물에 사벽이 적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궁궐 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의 종류는 사벽임이 틀림없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나마 상세한 기록을 남긴 두 궁궐공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창경궁수리(1633)는 불타버린 전각을 경희궁과 경덕궁에서 이건하여 짓는 공사였기에 몇 개의 시설을 묶어 5개 영역별로 나누어 공사가 이루어진다. 1소겸 잡물소는 통명전 5칸, 사성각 4칸, 西책방 6칸, 동·서행각 10칸, 남·동월랑 13칸, 여취당 3칸, 수라간 4칸, 擣砵家6칸을, 2소는 양화당 3칸, 연희당 3칸, 연경당 3칸, 각 부속 월랑 합 41칸과 문 합 2칸을, 3소겸 재목소는 환경전 5칸, 경춘전 5칸, 함인정 1칸, 각 부속 월랑 합 51칸과 문 1칸을 담당한다. 1소의 사벽용 미장재는 세사사벽 476섬, 교말 2섬 12말 5되, 휴지 51근 6냥 4진, 백와 190섬이다. 2소의 사벽용 미장재는 세사 25태, 교말 31말, 휴지 21근 12냥 5진, 백와 8태이다. 3소의 사벽용 미장재는 세사 入量, 진말 49말, 휴지 95근 12냥 5진, 백와 入量이다.

여기서 교말은 아교 가루를, 진말은 밀가루를, 휴지는 종이여물을, 백와는 백토를 일컫는다. 백와는 굵기 전의 마른 기와인데, 여기서

27) 창경궁수리도감의궤 3소겸 재목소, 歡慶殿, 景春殿, 涵仁亭, 부속 월랑과 문

28)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창덕1소, 임진 2월 5일, 대조전, 동서익각, 책방, 회정당, 승명문, 집상당, 징광루, 옥화당, 수정당, 정목당

29) 여기서 세사사벽은 특정 미장재료를 지시하는 것으로, 의궤 원문에는 細沙沙壁 또는 沙壁으로 표기되고 수량 표기의 단위인 駄, 石이 붙어, 미장벽 종류를 의미하는 사벽과는 구분된다. 이하 문장에서 세사사벽은 특정 미장재료를 의미한다.

30) 서궐영건도감의궤, 실입

31)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실입에 따르면 사벽 1,035태 외에도 세사 950태, 백토 170태가 별도로 있으나, 그 용도 사벽에 한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2)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실입에 따르면 사벽 850태 외에도 세사 1,024태, 백토 90태가 별도로 있으나, 그 용도가 사벽에 한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33) 중화전영도감의궤, 실입

34) 경운궁중건도감의궤, 실입

는 기와를 만드는 바탕흙인 백토를 가리킨다.³⁵⁾ 백와는 17세기 후반인 남별전중건(1677)까지는 사벽용 미장재로 나타나나, 이후 18세기 의소묘영건(1752)부터는 사라지고 백토가 이를 대신한다. 백토에 대해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는, “백토는 곳곳마다 있지만 가루가 희고 점착력이 있는 것이 좋다. 호서의 보령지방 사람들은 이 백토로 방실의 내벽을 바르는데, 굵기가 옥과 같고 밝기가 거울과 같아 종이로 도배를 하지 않더라도 사방의 벽이 환하게 밝다.”³⁶⁾고 하여, 백토가 벽 미장 마감재로 통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2·3소에서는 세사, 즉 가는 모래를 사용하는 데 비해, 1소에서는 세사사벽을 사용한다. 영건의례나 산릉의례를 통틀어, 세사사벽이 모래의 혼합물임은 짐작할 수 있으나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단서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 찾을 수 있다. 사벽토에 대해, “우리나라 건축제도에서 온돌을 깔고 벽을 치장하는 데에는 모두 붉은 찰흙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흙의 성질은 거칠어서 마르기만 하면 곧 균열이 생긴다. 이 때 노랑고 가는 모래흙 중 점착력이 있는 것을 취해서 말똥(馬糞)과 섞어 반죽한 다음, 붉은 찰흙 위에 얇게 발라서 갈라진 틈을 덮어 메우고 평탄하지 못한 부분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사벽이라 부른다.”³⁷⁾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희고 점착력이 있는 사벽토가 바로 그것으로, 한양에서 산출되는 것이 가장 좋다³⁸⁾고 하였다. 영건의례에 보이

는 세사사벽은 임원경제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노랑고 가는 모래흙 중 점착력이 있는 황세점토(黃細黏土) 또는 황세사토(黃細沙土)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사사벽은 대체로 황토와 모래(細沙)의 혼합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

창경궁수리에서 각 소별로 사벽용 혼합재로 들어간 총 소요량을 감안하면 모든 건물의 미장벽 마감에 사벽이 적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다른 기록을 통해 확인해보자.

숙종혼전도감의궤(1720)의 한 기록에 의하면, “정전 이하 여러 처소에 바른 사벽이 곳곳이 탈락하여 개수를 해야 하는 바, 거기에 들어가는 사벽 40태를 운반하는 일과, 사벽에 소입되는 휴지와 교말은 횡간에 따라 지급할 일.”³⁹⁾이라 기록한다. 여기서 정전은 혼전의 정전으로 사용된 건물로 창경궁 문정전을 말하고, 여러 처소란 승문당 3칸, 함안각 10칸, 행각 등 상례에 쓰이는 그 부속 건물을 말한다. 본래 사벽으로 처리되어 있던 창경궁 문정전, 승문당, 함안각, 행각 등의 건물 벽을 수리하는 내용이다. 미장벽 사벽의 구성재는 세사사벽, 교말, 휴지이다. 이는 [景宗]魂殿都監儀軌(1724)의 기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⁴⁰⁾ 혼전으로 사용된 창경궁 내 다른 시설물인 舊내반원, 舊사옹원, 東월랑에 대해서도 같은 혼합재의 사벽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⁴¹⁾ 창경궁의 문정전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여러 시기에

38) 위 각주와 동일

39) [肅宗]魂殿都監儀軌, 혼전 조성소 수본질, 庚子 7월 20일

40) [景宗]魂殿都監儀軌, 魂殿都監造成所, 수본질, 甲辰 10월 9일

41) [端懿嬪]魂宮都監儀軌, 조성소 수본질, 戊戌 2월 12일, “正廳以下行閣及移安廳祭器庫左右月廊等處所塗沙壁六十馱及方輓所排處細沙三十馱姑先輸入事漢城府良中分付爲乎矣沙壁所入白休紙膠末等物依橫看進排事捧甘爲只爲手決內依戶曹漢城府內瞻寺司瞻寺”

35)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창덕1소, 임진 2월조, “各殿 壁塗 細沙10馱 白瓦2馱”/『離禮廳廳錄(1627)』, “甘結內 雜像所用 白瓦5馱 輪納事 [漢城府]”/[孝宗]殯殿都監儀軌, 魂殿2房, 造成所所掌, 己亥8월 22일조, “通慶門行閣仰壁次 細沙2馱 白瓦1石”

36)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302~303쪽 참조

37)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304쪽 참조

걸쳐 혼전으로 사용되는데, 인현왕후혼전(1701)에서는 미장벽 사벽의 혼합재가 세사사벽, 교말, 휴지, 백와로 나타나,⁴²⁾ 창경궁수리(1633)의 1소와 동일하다.

창덕궁창경궁수리(1652)의 경우 창덕1·2소, 창경1·2소로 구분하여 공사가 이루어진다. 예로 창덕1소는 대조전, 동서익각, 책방, 회정당, 승명문, 집상당, 징광루, 옥화당, 수정당, 정목당, 월랑, 각종 문 등을 말한다. 이들 건물의 사벽용 미장재는 모두 세사 30대, 교말 22말, 황토 15태로 되어 있다. 창경궁수리의 사벽용 미장재 가운데 휴지와 백토가 빠지고, 황토가 추가된다. 황토는 백토 대응임을 밝히고 있으나 휴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기록의 누락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소요량이 창경궁수리의 2소보다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창덕1소의 모든 건물의 미장벽에 사벽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창덕1소에서 사벽 처리 후 진분과 삼목으로 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담당 건물인 대조전, 동서익각, 책방, 회정당, 승명문, 집상당, 징광루, 옥화당, 수정당, 정목당, 월랑 등의 사벽 위에 단청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의궤 기록의 편제상 다른 역소의 경우 확인하기 어렵지만, 창덕 1소와 마찬가지로 사벽 처리 후 단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벽 처리 후 그대로 두거나, 벽지를 발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³⁾ 이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정치한 연구가 따라야 하리라 본다.

42)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慶德宮啓祥堂修理造成所, 수본질, 辛巳 11월 16일/慶德宮啓祥堂修理時鑄成所, 수본질, 辛巳 11월 14일, “本所所掌閤家修補處及新造家所入沙壁十馱白瓦五馱爲先輸入事漢城府良中捧甘爲乎跡沙壁所入白休紙膠末等乙良依橫看上下進排事”

43)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302~303쪽, 본 논문 각주 37) 참조

한편 20세기 초 경운궁중건(1906)에서는 많은 건물들이 재건되는데, 의궤 기록을 통해 사벽 적용 건물과 미적용 건물을 구분 정리해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4] 경운궁중건 제 건축물의 사벽 적용 여부

사벽	건물명
적용	중화전과 행각, 즉조당, 석어당과 행각, 함녕전과 행각, 준명당과 행각, 홀문각, 영복당, 함유재, 함희당과 행각, 양이재, 경효전내 재실·어재실·이안청·중배설청·행각·長房處所, 덕경당, 삼죽당, 攸好室, 궁내부, 시강원, 태의원, 비서원, 공사청, 내의원
미적용	경효전, 경효전내 행각·내삼문·중삼문·돈례문, 중화문, 광명문, 건극문, 봉양문, 연광문, 藍興庫

이에 의하면 경효전을 비롯하여 그 부속 시설물인 행각·내삼문·중삼문·돈례문, 각종 대소 출입문인 중화문, 광명문, 건극문, 봉양문, 연광문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의 벽 미장에 사벽이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경효전은 편전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경운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경효전 내 시설물 가운데 재실·어재실·이안청·중배설청·행각·장방처소는 사벽을 적용하면서 경효전을 비롯한 여타 시설물에는 사벽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경효전을 비롯한 이들 건물에 사벽을 대신할 벽 미장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록의 누락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운궁중건의 실역(實役) 기록인 『장역기첩(匠役記綴)』에서 미장 공역 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眞土+莫土+雜石+細沙+白土로 구성된 花草牆, 宮牆, 間牆, 牆垣, 石牆, 煙筒 등 담장과 굴뚝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똥(馬糞)과 세사사벽(細沙沙壁)이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담장과 굴뚝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비바람을 맞기에 말똥과 세사사벽이 없

[표 5] 경운궁중건(1906) 실역 기록인 『匠役記綴』에 나타난 시설물별 미장벽 구성재 내역

구성재	시설물
眞土+莫土+細沙沙壁+馬糞+白土	(景孝殿)內三門左右行閣·中排設廳, (中和殿)午正門, 紅園內外堂東西溫突
眞土+莫土+雜石+細沙沙壁+馬糞+白土	咸寧殿行閣, 中和殿行閣, (德言堂)行閣, 紅園內外堂行閣, 內班院, 提調尙膳處所, 三祝堂, 德言堂 (懿孝殿)火防·間壁
眞土+莫土+雜石+瓦礫+細沙沙壁+馬糞+白土	(中和殿)行閣溫突
眞土+莫土+雜石+瓦礫+(細沙)沙壁+馬糞	內班院溫突, 提調尙膳處所溫突, 懿孝殿廚房溫突
細沙沙壁+馬糞+白土	(咸寧殿)殿閣左右洋製間壁, 咸寧殿·德言堂東西溫突
眞土+(細沙)沙壁+馬糞+白土	(咸寧殿)行閣溫突
眞土+細沙沙壁+馬糞	紅園外堂·複道
眞土+莫土+雜石+細沙+白土	花草牆, 煙筒, 宮牆, 間牆, 牆垣, 石牆

이, 진흙과 매흙, 잡석을 섞어 담장을 쌓은 후 세사와 백토를 혼합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말뚱이 세사사벽과 함께 미장벽 사벽의 구성재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중엽 남진증건(1858)부터다. 사벽용 구성재가 세사+교말+휴지+백토 또는 세사사벽+교말+휴지가 일반적인 하지만, 세사사벽+백토+말뚱의 형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백토, 모래, 사벽 등의 물건은 전례에 의거하여 사 쓰고, 말뚱은 들어가는 대로 지급(進排)할 일”⁴⁴⁾이라고 하여 말뚱이 추가되어 변화가 발생한다. 말뚱은 앞서 언급한 『임원경제지』 「섬용지」의 내용처럼 말뚱에 섞여 있는 섬유질과 점액질 성분이 미장재간의 부착력과 점착력을 더욱 높여 바름벽의 트집을 막아주기에 교말과 휴지 대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표5에서 일부 내반원 온돌, 제조 상선처소 온돌, 의효전 주방 온돌, 흥원 외당·복도의 경우처럼 백토가 생략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내반원, 제조 상선처소, 삼축당, 덕언당, 경효전 내 중배설청 등의 단위건물이나, 주요 건물에 딸린 행각, 온돌방을 막론하고 벽 미장

에는 세사사벽+백토+말뚱으로 구성된 사벽을 적용한다. 의효전 화방벽과 간벽(間壁)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벽이 적용된다. 구성재 가운데 진흙(眞土), 매흙(莫土), 잡석(雜石), 기와조각(瓦礫) 각각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부순 기와조각(瓦礫)이나 자갈한 돌조각(雜石)을 진흙 사이에 섞어서 담벼락을 쌓고”⁴⁵⁾라는 기록으로 보아, 네 가지를 섞어 초벽치기를 한 다음, 진흙과 매흙으로 재벽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 경효전 내삼문 좌우 행각 4칸에 들어간 미장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칸당 진흙 12斛, 매흙 6斛, 세사사벽 6태, 말뚱 2섬, 백토 1負로 되어 있다.⁴⁶⁾ 진흙과 매흙을 섞어 행각의 초벽을 친 다음, 세사사벽, 말뚱, 백토를 혼합하여 정벌용 미장재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표4의 사벽 미적용 시설물인 대문 가운데 중화전 오정문(午正門) 4칸에 대해서도 매칸당 수량만 다를 뿐 그 구성재는 경효전 내삼문 좌우 행각과 동일하다.⁴⁷⁾

45)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225~226

46) 『匠役記綴』 권18, 을사 9월 20일조

47) 『匠役記綴』 권18, 을사 9월 15일조

44) 남진증건도감의례, 2방 품목, 무오 7월 29일조

지금까지 궁궐 각 시설물의 벽 미장에 어떠한 재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았으나, 모든 시설물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궁궐 건축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석회 혼합의 미장재가 당시대에도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 궁궐공사에 사용된 석회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덕궁만수전수리(1655)의 예로 살펴본다.

창덕궁만수전수리는 창덕궁의 흠경각 터에 만수전을 비롯한 수 백여 칸의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공사다.⁴⁸⁾ 공사는 시설물별 3개의 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⁴⁹⁾ 이들 공사에 소요된 석회는 1소 289섬, 2소 176섬, 3소 15섬 등 총 480섬이다.⁵⁰⁾ 1소 소요량 중 250섬은 지붕마루의 양성바름, 즉 양상도회(樑上塗灰)용이고, 나머지 48섬은 기단이나 계단의 석물(階石) 교착재인 유희(油灰)용으로 사용된다. 2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요량 중 150섬은 양상도회용, 26섬은 階石油灰용으로 사용된다. 3소는 5섬은 굴뚝의 방전 교착(煙家塗灰)용으로, 10섬은 階石油灰용이다. 양상도회나 유희에 쓰이는 혼합재인 휴지, 들기름(法油), 밀가루(眞末)의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된다. 이와 같이 궁궐공사에 사용되는 석회는 미장벽의 정벌용이 아닌 지붕마루의 양성바름용 양상도회나 석물 교착용 유희, 방전 교착용 수회(水灰)임이 확인된다.

48)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례 1·2·3소 조성질, 신건한 건물은 만수전, 춘취전, 행각 등 총 163칸이고, 수리한 건물이 총 104칸이다.

49) 1소는 萬壽殿 36칸, 일각의 東翼閣, 西翼閣, 西行閣, 板牆, 千慶樓 20칸, 獻線閣 30칸, 五樑家, 外行廊, 窓差備, 洗踏房, 庫間, 長房, 司鑰房, 燈燭房, 長房庫間, 外月廊 등 180칸을, 2소는 春暉殿 20칸, 일각의 月廊, 樑家, 養志堂, 別監廳, 각종 門 등 97.5칸을, 3소는 西樓月廊 36칸, 南樓月廊 3칸, 春暉殿南月廊 16.5칸, 養志堂南月廊 9칸과 각종 협문 등을 담당한다.

50)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례, 1·2·3 각양잡물실입질

따라서 궁궐 제 건축물의 벽 미장에 관한 검토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적어도 17세기로부터 20세기 초(1906년)에 이르기까지 담장이나 굴뚝을 제외하고 궁궐 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 종류는 그 구성재만 차이가 날 뿐 사벽 외에는 없었다고 하겠다.

3-3. 왕릉의 제 건축물

조선시대 왕릉 조성에는 능상의 능묘 외에 이를 보조하는 건축물이 지어진다.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안향청, 전사청, 행각 등이 그것이다. 이들 건축물도 대개는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다. 그 경우 실과 실 사이 또는 외기와 면한 곳에는 벽이 설치되는데, 판벽이나 창호를 제외한 미장벽의 경우 어떠한 미장 마감으로 처리했는지 산릉도감의례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의례 조성소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별 벽 미장 내역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로 정리되지 않은 산릉공사의 경우에도 사벽이 보이나 어떤 건물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제외했다. 예컨대 昭顯世子墓所(1645)에서 사용된 물종 가운데 휴지 81근 8냥, 백와 17섬, 세사사벽 60섬이 보이지만⁵¹⁾ 그 사용처가 불확실하여 생략한다.

明宗康陵山陵(1659)에서 건물의 벽 미장공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정자각과 가재실(假齋室)이다. “沙壁所入 休紙四斤八兩 膠末六斗三升”과 같이 이들 두 건물의 미장벽으로 사벽을 적용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구성재료 휴지와 교말만 기록된다. 주요 구성재인 세사와 백토가 빠져 있다. 휴지와 교말만으로 벽 미장이 불가능하기에 기록의 미기일 것이다.

51)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조성소

52)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조성소 잡물질, “監膳廳 供上廳 祭物熟設房 水刺間 兩參奉房 進止內官 忠義房 砧家 等處”

[표 6] 조선 후기 왕릉 제 건축물의 벽 미장 구성재 내역

공사명	건물명	벽 정벌 마감재료				비고
		沙壁 (=黃細沙土)	膠末 (眞末)	休紙	白土 (白瓦)	
[明宗]康陵山陵(1659)	정자각		6.3말	4근 8냥		
	가재실		3말	2근 8냥		
[仁敬王后]翼陵山陵(1680)	정자각		6.3말	4근 8냥	15섬	
	재실		6.25말	4근	5섬	
	가재실 ⁵²⁾		2말	2근	5섬	
[仁顯王后]山陵(1701)	정자각	自本所入量取用	6.3말	4근 8냥	15섬	
	재실		6.25말	4근	5섬	
	가재실		2말	2근	5섬	
[仁元王后]明陵山陵(1757)	(정자각)	自本所入量取用	4말	4근 8냥		
[貞聖王后]山陵(1757)	정자각 5칸	入量本所	4말	4근		
[莊祖永祐園]墓所(1762)	(정자각)	入量	4말	4근		
	향대청	入量	3말	3근		
健元陵丁字閣重修(1764)	정자각	40테	依橫看	依橫看		
[英祖]元陵山陵(1776)	정자각 5칸	入量本所	4말	4근		나머지 건물 사벽 기록 없음
[正祖]健陵山陵(1800)	정자각 5칸	入量	5.1말	5근		
[貞純王后]元陵山陵(1805)	정자각 5칸	(入量)	5.1말	5근		
[翼宗]延慶墓所(1830)	정자각 5칸	入量	5말	5근		
[純祖]仁陵山陵(1834)	정자각 5칸	隨所入	5.1말	5근		
[孝顯王后]景陵山陵(1843)	정자각 5칸	隨所入	5.1말	5근		
[文祖]綏陵遷奉山陵(1855)	정자각 5칸	隨所入	5말	5근		
[純祖]仁陵遷奉山陵(1856)	정자각 5칸	隨所入	5말	3근		
[純元王后]仁陵山陵(1857)	가정자각 5칸	隨所入	5.1말	5근		
[哲仁王后]睿陵山陵(1878)	가정자각 5칸	隨所入	3말	5근		
[神貞王后]綏陵山陵(1890)	가정자각 5칸	隨所入	5말	5근		
[明成皇后]洪陵山陵(1895)	침전(寢殿)	(隨所入)	9말	8근		

仁敬王后翼陵山陵(1680)에서는 정자각, 재실, 가재실에 대해 벽 미장공법으로 사벽이 적용된다. 가재실에는 監膳廳, 供上廳, 祭物熟設房, 水刺間, 兩參奉房, 進止內官, 忠義房, 砧家 등이 속해 있어, 왕릉 내 거의 모든 시설물에 사벽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벽의 구성재로 휴지, 교말, 백토만 기록되고 세사는 빠져 있다. 기록의 생략일 것이다.

그 이유는 仁顯王后山陵(1701) 이후의 공사에서 나타난다. “自本所入量取用”, “入量本所”, “入量”, “隨所入”과 같은 표기가 그것이다. 이는 미장벽 사벽에 사용되는 세사는 들어

가는 양만큼 본소에서 취하여 쓴다는 것이다. 즉 도감에서 세사를 한꺼번에 조달해 놓고 각 시설물별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쓴다는 내용이다. 백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 공사에서부터 세사 대신에 세사사벽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바 세사사벽은 황토와 모래의 혼합물을 지시한다. 따라서 仁顯王后山陵(1701)의 경우처럼 세사사벽에 백토를 추가하기도 하지만, 仁元王后明陵山陵(1757)부터는 백토 없이 세사사벽+휴지+교말이 사벽의 구성재가 된다. 이는 19세기 말 明成皇后洪陵山陵(1895)까지 이어진다.

한편 仁元王后明陵山陵(1757)부터는 莊祖永

祐園墓所(1762)의 경우처럼 정자각 외에 향대청에 대해서도 사벽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대개 정자각에 대해서만 사벽이 적용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사벽이 적용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정성왕후산릉(1757)에서 정자각 5칸의 사벽에 들어간 미장재료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여타 비각 1칸, 수라간 3칸, 수복방 3칸, 전사청 11칸, 재실 9칸, 제기고 2칸 첨가 2칸, 중문 2칸, 행각 19칸 등의 벽 미장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재실에 대해 달리 다른 벽 미장재가 보이지 않고 토벽으로 처리했을리도 없기에 사벽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상 왕릉 정자각을 비롯한 각 시설물의 미장벽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오늘날 왕릉 정자각을 비롯한 제 건축물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석회 혼합의 미장재가 당시대에도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이들 산릉공사에 사용된 석회의 용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貞聖王后山陵(1757)의 예로 살펴본다. 석회가 소요된 곳은 삼물소 652섬, 조성소 361섬, 대부석소 90섬, 소부석소 4섬으로 총 1,068섬이다.⁵³⁾ 이 가운데 삼물소와 대부석소의 석회는 왕릉 석실과 능상 대석물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검토가 불필요하다. 소부석소 석회 4섬은 정자각을 비롯한 제 건물과 문, 우물, 다리, 어로, 담장 등 대소 시설물⁵⁴⁾의 1,164개 소석물⁵⁵⁾을 접합하는 유희용으로 사용된다. 조성소 석회 361섬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

되는데, 양상도회용 80섬, 축중방(築中防)용 11섬, 정자각 지정용 270섬⁵⁶⁾이 그것이다. 양상도회는 지붕마루의 양성바름에 사용되는 것이고, 지정용 석회는 기초 지정을 다지는 삼물회의 혼합재로 사용되므로 벽체 미장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축중방용 석회만을 검토해본다. 여기서 ‘축중방’이란 중방 아래 하인방 위, 두 기둥 옆 벽선 사이에 돌이나 벽돌, 방진을 두텁게 쌓아 만든 덧벽으로 일종의 화방벽을 일컫는다. 산릉 정자각이나 비각의 축중방에는 “築中防所入 半甗二訥 石灰十六石 休紙一斤十一兩 粥米二斗七升”라고 하여 주재료로 반방전(半方甗)이 사용되고, 그 교착재로 석회, 종이여물, 찹쌀풀의 혼합물인 수회(水灰)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회는 석회, 들기름, 종이여물, 풀가루(粥米, 膠末, 眞末, 粘米)로 구성되나, 들기름이 빠진 석회 혼합재의 경우에도 수회라고 지칭한다.⁵⁷⁾ 물론 축중방용 수회가 방전 교착용이 아닌 벽체 미장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성왕후산릉공사에서는 건물별 축중방용과 사벽용, 양상도회용, 지정용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어 축중방용 수회가 방전 교착용임이 확인된다.⁵⁸⁾ 따라서 산릉공사에 사용된 석회는 모두 건물의 벽체나 양벽의 미장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어진다.

이상 왕릉 제 건축물의 미장벽과 공법에 관한 검토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적어도 17세기로부터 19세기 말(1895년)까지 왕릉 건축물에

53)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각소 실입질 참조. 여기서 1섬(石)은 15말(斗)이다.

54) 丁字閣, 碑閣, 水刺間, 守僕房, 安香廳, 典祀廳, 參奉廳, 執事廳, 行廊, 紅門, 大門, 中門, 庫間, 白間, 廁間, 御井, 禁川橋, 瘞坎, 神路, 御路, 下輦臺, 欄干, 曲牆 등

55) 柱礎, 簷階石, 古莫石, 月臺石, 階石, 風石, 鵝里石, 橋石, 地防石, 花階石, 層橋石, 闊只石, 長臺石, 隅石, 星石, 山神牀石 등

56) 여기에는 기둥 초석과 월대 각각의 지정에 들어간 석회 120섬과 31섬이 포함된다.

57) 『各陵修改謄錄』, 무자 2월, 「健元陵丁閣兼告」

58)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조성소 품목질, 정축 2월 16일조, “丁字閣五間所入 築中防所入 石灰八石十五斗全石 白休紙一斤十一兩 粥米三斗, 沙壁所入 白休紙四斤 膠末四斗 沙壁入量本所, 櫟上塗灰所入 石灰八石十五斗全石 粥米一石 白休紙十五斤 法油四斗, 地正所入 石灰二百七十石十五斗全石”

적용된 미장벽 종류는 사벽 외 없다는 점이다.

4. 조선시대 민가와 사찰의 사벽

궁궐을 비롯한 종묘, 사묘, 왕릉의 제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벽체와 양벽의 미장재로 사벽을 사용하였다면, 경제적 여유가 못되는 민가는 제외하더라도 반가나 사찰의 주요 건축물에는 파급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가의 경우를 보면, 사벽에 대해 『임원경제지』 「섬용지」에서는, “우리나라 건축제도에서 온돌을 깔고 벽을 치장하는 데에는 모두 붉은 찰흙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흙의 성질은 거칠어서 마르기만 하면 곧 균열이 생긴다. 이 때 노랑고 가는 모래흙 중 점착력이 있는 것을 취해서 말똥(馬糞)과 섞어 반죽한다. 다음, 붉은 찰흙 위에 얇게 발라서 갈라진 틈을 덮어 메우고 평탄하지 못한 부분을 평탄하게 만드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사벽이라 부른다.”⁵⁹⁾ 또 “집 상부의 서까래 사이를 치올려다 보면 산자가 그대로 노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진흙으로 바른다. 흙이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노란 빛깔의 곱고 차진 모래(黃細沙土, 속명은 沙壁土)를 말린 말똥과 섞어서 진흙으로 반죽하여 바른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양벽이라 부른다.”⁶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편찬 시기가 19세기 초·중엽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19세기에는 벽체와 양벽에 모래+말똥+백토 또는 모래+말똥+황토로 된 사벽이 민간에도 상당히 보편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구성재는 다르지만 민가에 사벽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민가의 경우 벽체에 조선시대 사벽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사대부가로서 흥선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이다. 운현궁 일곽을 이루고 있는 我在堂, 老安堂, 老樂堂, 二老堂, 永老堂, 六四堂 등은 19세기 중엽인 1864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⁶¹⁾ 그 가운데 영노당⁶²⁾만이 벽체와 양벽에 古式인 황회색의 사벽이 남아 있을 뿐, 여타 건물의 경우 회벽이나 종이 벽으로 처리되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⁶³⁾ 사대부가 가운데서 중앙관부의 지원에 의해 조성된 특별한 경우에 속하긴 하지만, 영노당에 적용된 사벽은 운현궁 일곽 전체 건물에도 적용되었을 것이고, 사대부가의 보편적 미장벽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차후 좀 더 정치한 연구와 사례 검증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찰 중 조선시대의 사벽이 현재까지 온전히 남아 전해지는 것 중의 하나는 김천 황악산 직지사 대웅전이 있다.⁶⁴⁾ 이 대웅전은 영조 11년(1735)에 중건된 것⁶⁵⁾으로, 이후 수차례의 기와 변화, 연목 교체, 석축 보수, 부분적인 古色錦丹青이 있었지만 내벽은 중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전체 16칸 가운데 4칸만이 창호 없는 벽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창호가 있다. 배면은 5칸 모두에 중방을 가로대고, 중방 아래로는 살문을 두고 있다. 불단 뒤 내고주 사이의 후불벽을 포함한 내벽

61) 서울특별시, 『운현궁실측조사보고서』, 117~120쪽, 1993, 당초 운현궁 건물의 일부였으나 현재 담장으로 분리되어 운니동 김승현가의 본채로 되어 있다.

62) 서울특별시, 앞의 책, 20~21쪽

63) 서울특별시, 앞의 책, 58~61, 118쪽

64) 이하 내용은 2007. 8월, 국가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답사하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직접 확인한 내용에 근거한다.

65) 擁正 13년 을묘(英祖 11년, 1735), 鄭儻 書, 「直指寺 大雄殿 重創 上樑文 現판」, 賄澄 書, 「金山郡西 黃岳山 直指寺 大法堂 重創記」

59)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304쪽

60)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앞의 책, 224쪽



<그림 1> 직지사 대웅전 내벽의 사벽 위 벽화 사례
 은 사벽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외벽은 회벽으로 처리되어 있다. 회벽으로 처리된 외벽은 후대의 수리과정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내벽 중방 윗부분과 포벽, 후불벽은 사벽 처리 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원형을 간직한 몇 안 되는 사례이겠지만, 18세기 초 사찰에도 미장벽 사벽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사찰 건축물에 사벽 외에 어떠한 미장벽의 종류가 시행되었는지, 이후 많은 변형이 진행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관영건축물의 벽 미장에 적용되지 않은 회벽이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⁶⁶⁾

민가와 사찰건물의 벽 미장에 석회 혼합재가 사용되지 않았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석회는 매우 귀중한 물품 중의 하나로 통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통제 대상으로서의 석회는 그 효용성으로 인해 시대 변화와 함께 차츰 그 쓰임새와 사용계층이 확대되어 가긴 했지만, 석회는 근본적으로 쉽게 획득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원료인 석회석의 채취에서부터 고온

으로 생석회를 구워내고 건축에 활용하기까지 당시로서는 고도의 기술과 많은 연료 소비 등을 필요로 했다. 그런 까닭에 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은 것이다. 건축물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었던 분묘 조성에도 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한편 일반 백성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관영건축에서 조차 왕릉 조성, 석물과 방전의 교착, 일부 기초 지정의 강화, 지붕마루의 양성바름 등 특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지붕마루의 양성바름용 양상도회는 20세기 초(1906년)까지 왕릉이나 궁궐, 사묘를 막론하고 왕과 신이 직접 친림하는 건축물, 즉 왕릉의 정자각과 비각, 궁궐의 정전·편전과 그 출입문, 사묘의 정전과 이안청, 신삼문과 외대문에만 적용할 정도였다.⁶⁷⁾

둘째, 획득의 용이성과 비용이라고 하는 경제성의 측면이다. 관영건축에 사용하던 석회 혼합물로는 유희, 수회, 삼물회가 있다.⁶⁸⁾ 이 가운데 미장재로 사용한 것은 유희와 수회이다. 유희는 석회+종이여물+들기름을 구성재로 하는 석물 교착재이어서 벽 미장과는 무관하다. 수회는 석회+종이여물+들기름+풀가루(膠末, 眞末, 粘米, 粥米)를 구성재로 하는 방전의 교착재이어서 벽 미장과 관계된다. 수회의 구성재인 석회, 종이, 들기름, 풀가루는 당시로서는 모두 귀한 재료에 속한다. 이에 비해 사벽의 구성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모래+종이여물+풀가루+백토’, ‘세사사벽+종이여물+풀가루+백토’, ‘세사사벽+종이여물+풀가루’, ‘모래+말뚱+백토’, ‘모래+말뚱+황토’ 등 상대적으로 흔한 재료다. 공통적으로 석회와 들

66) 서유구 저, 안대희 편역, 앞의 책, 302쪽과 320쪽에서, 석회죽과 느릅나무 즙, 종이여물을 혼합하여 미장벽 정벌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석회와 찰쌀죽, 종이여물을 혼합한 분장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중국의 미장법을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미장법을 거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67) 이권영, 「山陵·營建儀軌 분석을 통한 조선 후기 관영 건축공사의 석회에 관한 연구 -석회의 생산·조달·적용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2009, 내용 참조

68) 위 각주 참조

기름 대신에 모래와 백토 또는 모래와 황토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래, 백토, 황토는 석회와 들기름에 비해 획득이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19세기부터 종이여물+풀가루 대응으로 나타나는 말뚱의 경우에도 비용 절감과 함께 획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성능 차이는 알 수 없지만, 관영건축물의 벽 미장에까지 '모래+말뚱+백토'로 된 사벽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석회 혼합제인 수회를 민가와 사찰의 벽 미장에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가와 사찰의 벽 미장에는 석회를 사용한 미장벽은 없었고, 토벽을 제외하고는 사벽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결론지어진다.

5. 결론

건축문화재 보수·복원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산릉·영건의례를 중심으로 한 당대의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건축의 벽 미장과 공법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건축문화재 수리에 적용되고 있는 미장벽의 종류는 흙벽, 사벽, 회사벽, 회반죽벽, 재사벽이 있었다. 그 구성재료 흙벽은 진흙+짚여물, 사벽은 모래+백토, 회사벽은 모래+백토+석회죽, 회반죽은 모래+소석회+해초풀+여물, 재사벽은 진흙+모래+석회+해초풀을 각각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미장벽의 뼈대 구성과 초·재벌바름은 현재의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둘째, 조선시대 종묘·사묘, 궁궐, 왕릉 등 관영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 종류는 사벽이었다. 현재 문화재수리 시 적용되는 회반죽벽, 회사벽과 같은 석회를 사용한 미장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시대 사용된 사벽의 공법은 '모래+종이여물+풀가루+백토', '세사사벽+종이

여물+풀가루+백토', '세사사벽+종이여물+풀가루', '모래+말뚱+백토', '모래+말뚱+황토'로서 시대별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는 현재 문화재수리 시 적용되는 미장벽 사벽의 구성제인 '모래+백토'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셋째, 조선시대 민가와 사찰 건축물에 적용된 미장벽은 흙벽을 제외하고 사벽이었고, 석회를 사용한 회벽은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석회가 관부에서 관리하는 통제의 대상으로서 그 사용처가 한정되었던 점과 함께, 사벽의 구성제가 회벽에 비해 획득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 측면에 있었다.

따라서 현재 종묘·사묘, 궁궐, 왕릉, 민가, 사찰 등의 건축문화재에 적용되는 석회를 사용한 미장공법 뿐만 아니라, 사벽의 미장공법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건축문화재의 수리·복원의 기준이 그 가치가 부여되는 당시대의 기술과 공법을 따라야 한다는 기본전제와도 배치되었다.

본 고찰을 통해 남겨진 과제와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조선 후기에 사용되지 않은 회벽이 조선 전기에 사용되었을지 만무하지만, 연구가 사료의 부족으로 조선 후기에 편중된 점이다. 둘째, 문헌 기록이 아닌 유구에 대한 실증 작업이다. 관영건축물은 물론이고 민가와 사찰의 미장벽에 대한 더 많은 사례 고증이 필요하다. 셋째, 시료 분석과 현장 확인 등, 확인된 조선시대 미장벽의 구체적인 공법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넷째, 확인된 조선시대 미장공법에 대한 실험을 통해 벽 미장재료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 백년간 남아 전해지는 직지사 대웅전이나 운현궁 영노당의 경우처럼 사벽의 내구성이 입증되기도 하지만, 시대별 달리 적용된 사벽 공법에 대한 성능 확인 작업은 오늘날도 활용 가능한 공법이 되는지 입증시켜 줄 것이다.

<참고 문헌>

1. 규장각 및 장서각 소장도서

- 1) 健元陵丁字閣重修
- 2) 景慕宮改建都監儀軌
- 3) 慶運宮重建都監儀軌
- 4) [景宗]魂殿都監儀軌
- 5) 儺禮廳階錄
- 6) 南殿增建都監儀軌
- 7) 南別殿重建廳儀軌
- 8) [端懿嬪]魂宮都監儀軌
- 9) [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
- 10) [明宗]康陵山陵都監儀軌
- 11) [文祖]綏陵遷奉山陵都監儀軌
- 12) 文禧廟營建廳階錄
- 13) 西闕營建都監儀軌
- 14) [昭顯世子]墓所都監儀軌
- 15) 垂恩廟營建廳儀軌
- 16) [肅宗]魂殿都監儀軌
- 17) [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 18) [純祖]仁陵山陵都監儀軌
- 19) [純祖]仁陵遷奉山陵都監儀軌
- 20) [神貞王后]綏陵山陵都監儀軌
- 21) 永寧殿修改都監儀軌
- 22)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 23) 懿昭廟營建廳儀軌
- 24) [翼宗]延慶墓所都監儀軌
- 25) [仁敬王后]翼陵山陵都監儀軌
- 26) [仁元王后]明陵山陵都監儀軌
- 27) [仁顯王后]魂殿都監儀軌
- 28) 匠役記綴
- 29) [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 30) [貞聖王后]山陵都監儀軌
- 31)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 32)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 33) 宗廟改修都監儀軌
- 34) 中和殿營建都監儀軌
- 35) 昌慶宮修理都監儀軌

- 36) 昌慶宮營建都監儀軌
 - 37)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 38) 昌德宮營建都監儀軌
 - 39) 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
 - 40) [哲仁王后]睿陵山陵都監儀軌
 - 41) 度支準折
 - 42) 顯思宮別廟都監儀軌
 - 43) [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2. 김왕직, 『알기쉬운 건축용어사전』, 초판, 도서출판 동녘, 경기도, 2007
 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수리표준품셈 및 실무요약』, 1998
 4.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문화재청, 2005
 5. 서울특별시, 『운현궁실측조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993
 6. 서유구 저, 안대회 편역, 『산수간에 집을 짓고』, 초판, 돌베개, 경기도, 2005
 7. 이권영, 「山陵·營建儀軌 분석을 통한 조선 후기 관영 건축공사의 석회에 관한 연구 -석회의 생산·조달·적용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2009
 8. 이권영, 「조선시대 관영건축에서 회벽의 존재 여부 고찰-영건·산릉의궐을 중심으로」, 2009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9
 9. 이권영, 「조선 후기 관영건축의 미장공사 재료와 기법에 관한 연구 -營建儀軌의 沙壁과 仰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3호, 2007
 10. 장기인, 『신편 한국건축대계 4 한국건축사전』, 재판, 보성각, 서울, 1996

접수(2010. 4. 7)

수정(1차: 2010. 6. 2, 2차: 2010. 6. 2)

게재확정(2010. 6. 4)

A Study on the Existence of Lime Plaster Wall in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Analysis of Construction Reports of 'Sanleong-Uigwe' & 'Yeonggeon-Uigwe'

- Emphasized on the Government Building Constructions -

Lee, Kweon-Yeong

(Associate Professor,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1970's, UNESCO and ICOMOS have adopted or emphasized on the principles of historic preservation. One of them is what to require a repair should not be repaired beyond the limits of the features and techniques which had been adopted in those days of establishment. On the premise,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aterials and technique of wall plaster work in the government building constructions in the Joseon dynasty. The result of this examination shall come up with a basic conformity in the case of repairing the building established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This paper is carried out for the proper repair and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Construction reports and other documents in those days are examined for the study.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study. The materials and technique which applied to wall plaster work in those days were quite different from the present. The technique that was used to wall plaster of government buildings in those days was not a lime wall plaster, but sand coat one. The kinds of material for setting of the sand coat wall plaster had been revised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or constructions. The main kinds of material were composed of sand, white clay, paper fiber, and cereal starch. However, the present materials were composed of sand, white clay. Therefore, the present materials and technique which applied to wall plaster work for the repair and restora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have to be revised and corrected.

Keywords : Joseon dynasty, lime plaster wall, sand coat plaster wall, technique of wall plaster work,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uigwe(儀軌)
